

## 의정소식

COUNCIL

### 제1대 고양특례시의회 인사위원회 공식 출범

고양시의회는 3월 17일 ‘제1대 고양시의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인사위원회 출범은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른 것으로, 인사위원은 인사·행정·법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외부 전문가 및 내부 공무원 9명으로 구성되었다. 앞으로 3년간 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 승진, 징계, 인사운영기본계획 등 인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 위로금 전달

고양시의회가 3월 18일 산불피해 현장인 강원도 동해시와 삼척시를 방문하여 피해현황을 살피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위문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를 고려하여 피해지역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의원들이 동해시와 삼척시 의회에 방문하여 의원들이 모은 성금 400만원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제261회 임시회, 3월 29일~4월 12일 열려

고양시의회는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열어 7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각종 안건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34건, 동의안 8건, 결의안 1건 및 기타 부의 안건 등 총 55건의 안건 중 최종 49건을 가결했고, 3건을 보류하고, 3건을 부결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 723억 대비 5.2p% 증가한 3조 2,333억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1,369억원이 증액 편성된 2조 6,526억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241억원이 증액 편성된 5,807억원으로 가결되었다.



마포동다방

## 「복자에게」를 읽고

글. 오창섭(일산동구 백석동)

소설 「복자에게」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고고리섬’은 제주에 실재하는 어떤 섬을 떠오르게 한다. 나에게도 그 실재하는 섬에서 나고 자란 한 친구가 있다. 언젠가 그 섬에 가본 적이 있는데, 빠른 걸음으로 두 시간 남짓을 다니면 섬 전체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섬의 아름다움과 별개로, 한동안의 뽕박질로 세상의 끝인 것 같은 바다와 마주하게 되는 작은 섬에서 그 친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유년 시절을 건넌들까 싶은 마음에 좀 멍멍해지다가 느닷없이 콧날이 시큰해졌던 기억이 난다.

그런 날들이 있다. 끝내 화해하지 못한 사건이나 사람들과 함께 있던 시간. 그제 더욱이 유년시절의 일이었다면,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날들. 작가의 말대로 그런데도 ‘절대 미워하지 않을 날들’이 있다. 어린 시절에 누군가에게 버려진 기억은 특히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된다.

「복자에게」의 주인공 이영초롱은 부모의 경제적 파산으로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제주의 고모에게 맡겨진다. 그런 ‘버려짐’의 상처를 가진 영초롱이는 누군가를 믿을 마음의 힘이 없었다. 반면 복자는 기르는 강아지 얼굴에 눈썹을 그려주는 아이다. 누군가 강아지 얼굴에 눈썹을 그린다는 건 강아지에게도 사람을 대하듯 특별한 마음을 쏟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일 게다. 그래서 열세 살의 영초롱이는 어떻게 해서든 복자가 자기를 친하게 지낼 만한 존재로 여겨주기를 바라며 가까이 지낸다. 하지만 사소할 수도 있는 어떤 사건으로 둘은 멀어지고 결국 화해하지 못하고 헤어진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나 두 사람은 각자 인생이 조금씩 훼손된 채로 ‘제주’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소설에서

‘제주’라는 공간은 어른이 된 주인공이 앞서 말한 ‘그런 날들’과 재회하게 되는 기억의 장소다. 서울에서 제주로의 공간이동은 가장 힘들었던 유년시절로의 회귀를 의미하며, 이제는 어른의 눈으로 그때의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현재의 나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각성의 장소일지도 모른다. 어른의 시각에서 반성을 통한 각성이라기보다는 그 자체로의 그날들을 인정하고 용인하는 마음.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내 마음 정도는 헤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주는 그 시절에 대한 미안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치유의 장소이기도 하다. 누군가에게 밀쳐진 상처로 다른 이를 믿을 힘이 없게 됐고, 그래서 관계에 실패했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모든 걸 용인해 주는 마음에서 진정한 어른 되기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책을 덮고 한동안 소설의 여운을 느끼고 있다 보면 결국 화해하지 못했던 내 어린 시절의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 보고 싶다. 부치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때 “미안하다” 용기 있게 먼저 말하지 못했노라고.

복자에게  
저자 김금희 | 출판 문학동네

